

##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 개발...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주)

식품의약품 품목허가, 61만회분 첫 수출...이철우 기념식 참석  
햄프 산업화 위한 규제 완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확대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으로 스카이코비원 노바백스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2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개최된 국산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 기념식에 참석해 "5일부터 12세 이상 성인 미접

종자를 대상으로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방역당국도 "5일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면서 이날부터 12세~17세도 노바백스 접종 사전예약과 당일접종 신청을 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의 화이자를 접종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mRNA(백신)에 이상반응 우려가 있어 접종을 미뤘은 청소년에게도 접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은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내 제1호 코로나19 백신이다.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첫 물

량 약 61만 회 접종분을 8월26일 국가 출하승인을 마치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1회 출하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지방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중앙정부의 전

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역설하고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도 건의했지만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닌 규제특구라 불린다"며 "기업이 공장을 짓고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풀어 달라. 규제만 풀어주면 지방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 경북, 태풍11호 '힌남노' 피해 규모(13일 현재 잠정) 사망 10명, 실종 1명, 부상 2명

지방하천 24개소(60건) 330여억원, 주요시설 피해 515건 488억원  
농작물 5,830ha(침수 2,392, 낙과 2,538, 도복 등 900), 이재민 1,493명  
이철우 "모든 행정력 총동원 신속 피해조사, 빠른 지원, 일상회복"

태풍 '힌남노'로 7일까지 내린 경북도 시군별 평균 강수량은 경주가 259.6mm로 가장 높았고, 포항은 258mm, 청도 187.6mm, 김천 158.8mm, 성주군 132mm순이다. 반면 동해면이 569.0mm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이 내렸다. 8개 시군에 19,563가구(복구완료)가 정전됐고, 2개 시군 35,300가구(복구율 99.6%)가 상수도 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일 현재 사망 10명(포항9, 경주1), 실종 1명(포항), 부상2명(포항) 등 1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시설 피해현황은 515건 488억원(포항 160건 104억원, 경주 355건 3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는 그동안 장비 7,302대, 인력 41,774명을 투입해 총 4,710곳의 응급복구 시설 중 4,390개소를

복구완료하고,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1,000세대 1,493명 중 817세대 1,253명을 귀가시키고 아직 183세대 240명은 마을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에서 구호 중이다.고 밝혔다.

'힌남노'로 하천 분야에만 포항, 경주 등 지방하천 24개에 60여건, 330여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농작물 5,830ha(침수 2,392, 낙과 2,538, 도복 등 900)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추석 전 지난 8일부터 피해가 큰 하천 16개소에 각 하천별 응급복구 담당자를 지정·배치해 추석 연휴에도 굴삭기 41대, 덤프 12대, 도저2대 등 매일 55대의 중장비를 동원해 13일 현재 소하천 복구율 86.1%, 응급복구율 73%, 사유시설 64%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가운데 이철우 지사는 "침수 주택 복구 정부 재난지원금은 200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부터 연일 태풍 '힌남노'로 붕괴위기에 놓인 경주 왕신저수지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복구와 지원을 지시했다.



예천과수원



경주농작물



포항농작물



피해복구지원

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상가 당 200만원(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은 물

론 신속한 피해조사로 국가와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침수 주택의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추가지원 방안 검토는 물론 정부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건의해 정부재난복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중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제9대 의원>>

김용문, 이영우, 배수예, 김선태, 김종욱, 이영기, 권기한, 이갑균, 김상호, 박주학, 우애자, 하기태



# 경북도내 제조업 국내 최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이달 19일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북도가 도내 제조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9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위해 국내 물류 지원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수급과 제품 출하에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이 사업은 국내 소비 및 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풀필먼트 서비스 급부상, 온라인진출 중소기업(소기

업 중심) 대폭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요구 변화에 대응하는 도 지원 최초로 국내 물류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공고일자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2021년 재무제표 상 연간 운반비 3000만원 이상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난해 연간 운반비가 3000~5000만원 미만의 150개 기업을 모집해 기업당 300만원, 5000만원 이상 50개 기업을 모집해 기업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운반비를 구간별 차등해 총 200개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새바람 행복 플랫폼(<https://happyplatform.gepa.kr/>)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9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지수 기자

# 영천, 태풍 '힌남노' 피해 경미... 市공무원 80명 포항 재해복구 지원에 긴급 투입

### 경북안전기동대, 市자원봉사센터, 市의용소방대, 이만희의원실 피해복구 힘 쏟아

11호 태풍 '힌남노'가 인근 포항, 경주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가운데 영천지역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로 시민들은 한숨 돌렸다. 영천시는 가장 피해가 많은 포항과 경주지역 피해복구에 더 힘을 쏟았다.

이번 '힌남노'로 임고면 수성리 195mm, 고경면 덕정리 209mm, 북안면 상리 255mm등 지역별로 강수

량 편차를 보였으나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평균 124mm의 강수량을 나타냈다.

지난 6일 새벽 2시부터 하루 동안 경북소방 '힌남노' 구조 활동실적을 보면 영천은 북안면이 가장 많은 피해가 났다. 북안은 주택5, 사찰1, 우사1, 공장 1곳 등 모두 8건의 침수가 발생했고, 고경면은 주택1, 우사1건

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지원으로 복구했다. 범어동과 임고에는 가로수 2건이 쓰러져 제거되는 등 모두 14건의 경미한 피해로 잠정 집계됐다.

영천시는 8일까지 소관 시설별 피해 상황을 파악해 NDMS입력을 완료했으며, 경북도는 중앙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실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을 요청했다.

한편, 영천시는 8일 이번 태풍으로 경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공무원 80명을 긴급 투입시켰다. 또 8일부터는 농협직원 150명, 이만희의원실 50명, 영천시자원봉사센터 40명을 포함해 영천시의용소방대, 농협영천시지부 등에서도 포항 피해지역 피해복구에 힘을 보탤다.

특히 경북안전기동대(대장 유재용)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부터 매일 50여명씩 포항 구릉포 등에서 현재까지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민간 자원봉사 모범을 보였다.

반면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협,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50여명은 화남면 안전리와 신녕면 신덕리 등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과수원으로 출동해 농민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장지수 기자



市공무원



이만희 의원실



경북안전기동대



영천시자원봉사센터

# [울진] 후포해양수산복합센터 준공도 하기전에 태풍간접영향에 침수...2019년 '미탁' 때도 침수

### 위치선정, 설계부실 등 논란 중복지원 예산낭비성 사업 지적도

후포해양수산복합센터(이하 센터)가 준공도 하기전에 지난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간접영향에 침수돼 위치선정부터 부실 설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센터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연면적 2만 9천㎡규모로 후포~울릉간 여객선 취항으로 급증한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과 주변 어시장과 수산물 상가 등 정비 및 집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군은 착공 1년 4개월여만에 이곳

에 수산물 직판장, 단체식당, 휴게전망 등 시설을 갖추었으나 태풍 힌남노의 간접 영향에 신축 건물도 준공도 하기 전에 침수되면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때문에 불과 1Km 인접거리에 전임 전찬걸 군수 당시 약 100억원(보조 49억원, 자부담 45억원)으로 건립한 남 울진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업종이 겹쳐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성 사업 지적도 받고 있다.

이곳 센터는 또 2019년 당시 태풍 미탁에도 침수된 적 있어 당초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흘러 나와 전반적 부실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군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보다는 후포수협이 임대하고 있던 왕돌초회센터 철거 여부에 따라 해수부의 건립 허가 승인 가·부가 결정되는 터라 전(前) 후포수협장의 동의를 받는 데만 급급해 오늘과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후포 해양수산물 복합시설은 준공도 전에 입점 과열 현상을 보여 준공 후 점포 분양 과정에

서도 많은 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후포면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정한 분양에는 민간위탁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후포면의 경우 후포수협이 회센터 등 3개의 항만시설을 독식하고 있는 점과는 다르게 죽변면은 순수 민간단체인 죽발협이 해수당을 비롯 수산물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비취볼 때 늦었지만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정상 후포를 정상으로 바꿔 민간의 존재가치를 높이도록 울진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군수의 실패는 행정조직을 사조직화 하는 가운데 발생되었음을 현 군수는 "반면교사"로 삼아 측근 밀어주기 치적쌓기로 인한 예산낭비성 사업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협의회는 지역별 민간주도형 제안 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부터 정비토록 하는 한편 민간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균정 일선에 있는 읍, 면에 "군민신문고"를 설치,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신속한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울진, 영덕=손광명 기자

#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최대 1만원 할인쿠폰

추석을 맞아 경북도내 네곳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9월 2일부터 7일간 경주 성동·중앙시장과 영덕시장, 울진 죽변시장 네곳에서 행사기간동안 시장 내 지정 부스를 방문하면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급받은 쿠폰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수산물 구매금액이 2만원~4만원이면 5,000원 4만원 이상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네곳 시장 14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구입 상품가액의 30%를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어 이중 할인혜택이 주어진다.(희집은 제외)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할인쿠폰과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사업비 3억7600만원(할인쿠폰 2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1억76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김효정 기자





돋보기 분석

# 영천시, 멀쩡한 경로당 두고 신축 왜?... 예산낭비 지적

(8억5000만원)

실제 용도는 경로당, 건축은 마을회관...시가 부지매입비 지원 가능하나? 부지매입(3500만원), 실거래가 5천만원? 할인금액(1500만원)은 기부채납? 도비(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새마을사업비), 지자체 경로당 신축 지원 가능? 영천시의회, 불필요한 신축 예산 실효성 꼼꼼히 따져야  
영천시, "주차장 협소, 기존건물 노후, 어르신 안전 등 이용 불편" 시의원, "가장 큰 마을로 어르신 이용 인원 과다, 행사때 협소, 리모델링 필요"

영천시가 도로확장을 명분으로 멀쩡한 경로당을 두고 새로 신축 계획을 착수해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용도는 경로당이면서 실제 건축은 마을회관으로 조성해 편법지원 논란도 나온다. 특히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도 미세하여 일부 보완만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신축 부지매입 과정도 의도적 기부채납 방식을 도입해 꼼수 행정 의혹까지 나오지만 영천시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시는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1일부터 열리는 영천시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500만원의 신축부지 매입비를 편성해 의회승인을 받았다. 때문에 부지매입 후 시비 4억원과 도비 4억원 등 8억원으로 지상 2층을 신축해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경로당(사진⑤)은 화장실(사진 A)만 없어지고 또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질 뿐 일부 보완만으로도 사용에는 별 무리가 없는 상황. 하지만 시는 기존 경로당에서 350미터 떨어진 농지 한가운데(사천리 660-3번지(632㎡))에 8억5천만원을 들여 새로 경로당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사천1리 일부 어르신들은 "새 경로당이 마을 가운데로 오면 편리하다"는 반면 지금의 경로당 인근 어르신은 "오히려 경로당이 멀어지면 더 불편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영천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신축 이전을 강행해 의회에 부지매입비를 요청해 두고 있다.

영천시의회가 예산 낭비요소가 없는지, 또 불필요한 신축에 따른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다. 멀쩡한 건물의 효용성을 위해 운영 방법이나 대체 개선책이 없는지 우선 살핀 후 꼭 필요하면 예산 사용을 허용해야하는것이 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선출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승인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60세)는 "도로 확장으로



화장실(사진A) 1/2만 철거돼 인도폭(사진① 폭2M) 만큼 더 들어오면 새 인도와 (기존 경로당)건물 사이에도 2M폭(사진②)만큼 공간이 남는다"면서 "어차피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면 없어지는 화장실과 부족한 주차장만 보완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조언했다.

실제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사진) 경로당 옆 카센터(농기계수리)는 도로 쪽으로 경로당 보다 약1M가량 더 돌출되어 있어 확장 후 새 인도와 건물 사이에 폭1.5M가량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경로당의 경우는 옆 건물보다 안쪽이어서 새 인도 설치 후 인도와 건물 사이에 약 2M의 폭이 남는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조언이 설득력 있다.

특히 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부지(사진 흰색 점선 부분)는 겨우 폭 1.5M 가량(보상비 3500만원)으로 화장실(사진A의 붉은색 수직선) 일부

만 뜯겨나가는 것으로 확인돼 멀쩡한 건물을 두고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의회가 꼼꼼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입장이 달랐다. "기존 주차장이 좁아지고 도로가 가까워지면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한 한편 당초 건물이 오래됐고(1996년 준공) 2018년 영천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지 매입 과정도 불필요한 기부채납 꼼수 행정 지적에대해 시는 "부지매입비는 5000만원(실거래가)인데 땅 주인이 1500만원정도 싸게 팔기 때문에 1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부채납형식으로 받는다는 것. 이는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 앞서 다른 부서들도 기부채납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축 사업비 8억원은 경북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새마을사업비 4억원과 순수 시비 4억원 등 8억원이 추가 편성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 새마을사업비가 지자체 경로당 신축비로 사용할 수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승인 논란에도 지역구의원들은 신축을 선택했다. 이갑균 의원은 "근본적으로 건물이 오래됐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할 수준으로 차라리 신축하는게 맞다. 지역 주민들의 동 의회를 거친 사항으로 신축해야 한다"에 기울었다. 권기환 의원은 "화남면에서 사천1리가 가장 큰 마을이다. 인원은 많고 경로당이 협소해 신축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로당이 오래된 건물이고, 부지 일부가 도로 확장에 편입되면서 주차장 협소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신축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영천시의 이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 장지수 기자

## 최기문 영천시장 추석인사(현수막) 특혜 논란... 태풍 '힌남노'도 무시

행정계시대 사용, 법적 근거?...市, '지정계시대' '동문서답' 자치단체장 명절 인사 현수막...시민혈세로 제작했다면? 다른 선출직은 10여일 부착...최 시장 현수막은 한 달여 이철우 도지사 지정계시대...최기문 영천시장 행정계시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곳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명절 인사 현수막 또한 행정계시대를 이용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 지정계시대가 아닌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현수막 역시 모두 불법이다.

최근 추석이 다가오면서 도로변 가로수는 물론 교통표지판 등 공공 시설물 등에 선출직들의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최기문 영천시장)은 이같은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계시대를 이용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시내 모든 현수막이 철거됐지만 최 시장의 명절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특혜성 논란이 더욱 가시화됐다.

현수막 게시대는 두 종류다. 행정계시대는 지정계시대(상업용)와는 반대로 정당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소방·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각종 시책 및 정책이나 행사 등 업무와 관련한 홍보를 위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 1일부터 이같은 행정계시대 48곳에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영천시장) 최기문』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적법성 논란을 불러왔다. '최기문 영천시장' 개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행정계시대 목적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본지 지적에 영천시 담당 부서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장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법 제3조 및 제5조 금지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아닌 이상, 신고 후 지정계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계시대와 지정계시대를 구분하지 못한 동문서답이다. 담당이 말하는 법 제3조 및 제



5조 어디에도 행정계시대에 市長의 이같은 명절인사 내용이 행정계시대 목적에 부합하다는 내용은 없다. 경북도와 영천시 옥외광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사적 명절인사가 공공업무와 관련된다는 조항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본지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영천시 옥외 광고물협회 역시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를 행정계시대에 걸어도 된다는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옥외광고 총주지부와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는 아예 행정계시대에 걸 수 없다"면서 "그런 전례도 없다"고 일축

했다. 이 때문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정계시대에 개인 비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지난 설명절에도 50여곳 행정계시대에 걸었고, 잇따라 이번 추석에도 48곳의 행정계시대에 市長의 사적 명절인사 현수막을 내다걸어 위법성과 꼼수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엄격히 단속하면서도 법질서를 지켜야할 선출직들이 앞다투어 불법 현수막을 내다 걸고, 또 꼼수로 자신만 행정계시대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는 市長 등을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천시 관내에는 모두 132곳의 행정계시대 및 지정계시대가 설치돼 있다. 이 중에 가로형(저단형) 행정계시대는 9곳, 세로형 행정계시대는 11곳, 면단위 저단형 행정계시대 2곳 등이 설치돼있다.

한편, 경남지역 18개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2021년 한해 동안 많게는 1150만원, 적게는 90만원을 명절인사 등 사적 홍보성 현수막비로 사용해 형평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또 이번 추석에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시민혈세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제작 불법으로 설치해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구청들은 언론과의 답변에서 "통상적인 관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기문 영천시장 행정계시대 추석인사 현수막 논란 후 영천시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12일 신광정사거리) 일부 선출직들의 불법 명절인사 현수막을 철거했다. 부처한지 9일 만이다. 반면 행정계시대 최 시장의 현수막은 그대로 부착해두었다. 최 시장의 명절인사 현수막은 지난 달 21일부터 게시해 이달 19일이면 한 달이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체육회 시민체전 예산 10억 전액 삭감 논란

박봉규 市체육회장, "앞으로 시민체전 예산 필요없다" 발끈  
체육회, "시민화합 저해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는 각성하라"  
의회, "1개월 남겨 놓고 10억 시민체전, 시기 촉박, 졸속대회 우려"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가 올해 시민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가 13일 의회를 방문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충돌했다.

박봉규 市 체육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의회가 개원(제2차본회의)하기 전에 지역 각읍면동 체육회장들을 소집해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코로나로 개최를 하지 못하다 3년만에 찾아온 대면 시민화합체전 예산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것은 市체육회 및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위로 각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앞서 "市체육회장을 비

롯해 각읍면동체육회장들이 직접 전화통화와 미팅으로 시민체전 개최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의회가 일방적으로 대회를 무산시켰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삭감 이유를 밝혀야한다"면서 회의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또 "이제 예산은 필요 없다. 우리 돈으로 대회를 개최하겠다. 다시는 의회에 시민체전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격앙하고 정면 각을 세웠다.

반면 영천시의회 이영기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 소관 총무위원회(6명), 예결위원회(6명) 각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전체 의견을 들어 삭감한 것이다"며 강조하고, 전



13일 의회 전정에서 의원(왼쪽)들이 체육회장들에게 10억 시민체전 예산 삭감에 대하여 고개 숙이고, "긴급한 추경예산을 내면 본 예산으로 넘긴 것이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체 의원의 구체적 삭감 사유는 ▲오는 11월에 시 전체 행사가 너무 많아 이때 체전을 개최하면 행정낭비 우려가 있다.▲큰 예산인 10억원이다 (1개월만에)행사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연말이 아닌 내년 4월까지 의견이 많았다. ▲ 아직 코로나(하루 200여명 확진) 확산 우려도 많다. ▲11월초만 양파·마늘 파종 시기로 농번기로 많은 참여가 쉽지않

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단 1명의 의원 반대없이 삭감한 것이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하기위한것은 아니다. (급작스런 추경이 아닌)내년 정식 본예산을 편성해 4월에 개최하는게 좋겠다"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추경안은 삭감한 것이다"며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에 체육회장들은 "11월보다 4월이 더 농번기다. 농번기도 모르는 시의원 아니냐? (4월)그때는 체육회장들 모두 체전을 못할 것이다. 이번 시민체전 예산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체육회장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한적 있느냐"며 오히려 더 격앙하고 "앞으로 예산따위는 필요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하기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성명서에 발표된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시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면서 양해를 부탁하고, 이날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체전 예산10억원을 상임위와 예결위 원안대로 삭감 통과시켰다.

한편, 市체육회는 앞서 이날 성명서 발표 및 의회 항의방문을 위해 추석 다음 날인 11일 오후 6시30분예 각 읍면동체육회장들을 긴급소집해 대책회의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회는 14일부터 예산삭감을 이유로 거리에 성토 현수막을 내걸고 의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제1차) 제2차 본회의 개최

영천시 2021년회계년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난해 市 결산 집행액 총 1조1,455억9,000만원, 세입 대비 83% 지출  
수입은 기정액보다 126억 5,600만원 초과한 총 1조3,783억4,300만원  
2022년 집행부 추경안 중 10건 21억 6,980만원 삭감 처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영기

제9대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개원 후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제225회 올해 정례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제

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기)가 집행부(영천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0건에 21억 6,980만원을 삭감한 가운데 지난 13일 마무리했다.

이날 예결위에따르면 2021년회계연도 집행부(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세입결산액은 1조 3,783

억 4,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26억 5,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1조 1,455억 9,000만원으로 세입 대비 83%를 집행하고, 잉여금은 2,327억 5,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비 결산내역은 당초 재난 긴급생활지원사업비 외 25건에 122억 2,600만원을 결정하였으나 총 116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은 이월, 그리고 5억 5,300만원을 남겼다.

이날 이영기 예결위원장은 "각 상임위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

한결과 2021년도 집행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상·하하수도 특별회계는 각 상임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도 집행부 제2회 추경안 재정 총괄 규모는 1조 3,207억 2,5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7억 5,204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일반회계는 1조 45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3억원이 증액 편성했다. 또 특별회계도 기정액 대비 59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8억원이며, 기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회는 이번 집행부 추가경

정예산안 중 시민체전 1억원, 영천문화원진입로환경개선사업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모두 10건에 21억 6,980만원을 삭감 의결하고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마감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마감하는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23일 오전 11시이다.

이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예결위를 마치면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집행부 추경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소모적 경비인지를 꼼꼼히 살펴 재원이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사업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했다"면서 예결위 본회의장 보고를 마쳤다.

장지수 기자

## 영천축협, 장학금 5,200만원 지급



영천축협 조합장 김진수·사진

영천축산농협(조합장 김진수·사진)이 올해 조합원 대학생 자녀 26명에게 5,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축협은 지난해에도 조합원 자녀 30명에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축협은 8월17일 영천축산농협 경제사업장 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장학금 수령 조합원 및 조합원자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며 지난달 20일 이같이 밝혔다.

김진수 영천축산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료 가격인상 등 조합원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축산사랑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장학금 지급 이유를 전했다.

김효정 기자

## 2023학년도 184교 고교입학전형요강 승인

전기 5,725명, 후기 17,124명-도내 고등학교 고입전형 온라인 진행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5일 2023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184교의 입학전형요강을 승인·발표했다.

전기 고등학교 중 가장 먼저 학생을 모집하는 경북과고(3학급, 60명), 경산과고(3학급, 60명)는 전체 120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8월 31일부터 사흘간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또 도내 7개 마이스터고에서는 전자, 기계, 원자력, 식품과학, 국제통상, 스마트해양 등 분야에서 총 762명을 모집하며, 김천예술고(3학급, 81명), 포항예술고(4학급, 92명), 경북체육고(3학급, 90명)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 계열에서 263명을 모집한다.

49개 특성화고 및 직업과정 설치교에서는 상업, 공업, 전자, 기계, 정보, 디자인, 조리, 항공, 반려동물, 생명과학, 보건 계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4,580명을 모집하게 된다.

후기 고등학교 중 108개 비평준

화 일반고 모집 인원은 전체 601학급, 13,722명(남고 3,953명, 여고 3,956명, 공학 5,813명)을, 경북외고는 125명을 모집, 자사고에 해당하는 김천고(8학급, 240명)와 포철고(10학급, 300명)에는 전체 540명이다.

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형요강검토단을 구성해 학교별 고입기본계획과 관리지침을 검토해 요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오는 9월 평준화지역(포항시) 일반고 14교(2,737명)의 입학전형 요강 공고까지 마친 후 2023학년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에 대한 일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고입전형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고입전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임기 1년 연임

인사검정위원회 보고서 채택  
1년 연임은 공모절차 없어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사진

을 포함해 ▲신효광(청송)▲김진엽(포항)▲조용진(김천)▲손희권(포항)▲최병근(김천)▲박용선(포항)▲강만수(성주)▲김창혁(구미)▲박성만(영주)▲김대진(안동)▲이형식(예천)▲이선희(청도)▲최병준(경주) 등 14명의 의원이 맡았다.

의원들은 하 원장에 대해 주민등록 주소지 대구, 재임기간중 기업유치 노력 부족, 하 원장의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부족 등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도내 균형발전, 혁신도시 입주를 제고, 청렴도 향상, 포항테크노파크와의 특화분야 업무조정, 새부지 마련과 신축 등을 당부하면서 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경북도에 넘겼다.

이준우(영천) 위원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등 소통이 부족"을 질책 하면서도 "향후 연임하게 되면 오늘 14명의 인사검증위원이 짚어준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고심하여 경북 산업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오는 10월 31일 만료되는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사진)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이준우)'는 29일 하인성 원장의 1년 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경북도)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인사검증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더해 14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2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이준우 위원장



# 영천 청년들의 전용 공간 오픈... '영천청년센터' 개소식

<충효로 60>

## 지역 청년정책 발굴 위한 청년 참여분위기 조성 목적

영천지역 청년들의 전용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이 처음 문을 열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영천시는 지난달 26일 충효로 60, 투썸플레이스 영천시점점 4층에 '2022년 영천청년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청년지원에 나섰다.

청년센터는 이곳 4층 약334㎡(101평)의 사무실을 임차(10개월 2,220만원)해 리모델링비용 8000만원을 들여, 운영비 2억3,000만원(년)으로 카페테리아, 스튜디오, 상담실, VR모

의면접실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청년들의 회의, 강연, 청년문화행사 등 무료대여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곳 운영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도시사람콘텐츠클럽(대표 강구민)에 민간 위탁을 맡겨 지역 청년들의 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참여분위기 조성이 목적이다.

특히, 영천시는 취업 준비생 또는 면접 준비생을 위해 여러 직종별 기업 면접을 VR모의면접 기계를 통해 목소리 크기, 답변 길이, 시선 처리 등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VR모의면접실이 마련해 향후 메타버스 존을 설치하여 청년들의 흥미와 유익함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운영 시간은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

고, 사전예약 시 일요일이나 야간에 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청년센터 오픈 테이프커팅과 함께 센터 개소식을 축하했다.

장지수 기자

# 강보라, 연이은 세계대회 승전보,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 청신호



## 프랑스 파리 2022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대회(G-6), 동메달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보라 선수가 연일 메달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발 승전보다.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2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대회(G-6)에서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보라 선수가 동메달의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강 선수는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보라·미르 자매 선수로 이름이 더 알려져 있다. 자매 선수는 국내는 물론 세계대회에서 연이은 메달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언니 보라 선수가 프랑스 파리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대회(G-6)

에서 여자 -49kg급 경기에서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태국의 패니 팍 옹파타나키트 선수에게 1:2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동메달에 머물렀지만 세계대회 메이저급 성적이다.

이에따라 강보라 선수는 6월 열린 춘천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오픈대회, 8월에 열린 이스라엘오픈대회에 이어 세계대회 메달을 연이어 획득하면서 오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대회에서 장준(한국체대/남자-58kg), 심재영(춘천시청/여자-49kg), 이아름(고양시청/-57kg) 선수는 예선에서 탈락했으나, 남민서(한국체대/여자-67kg) 선수는 은메달, 이다빈(서울시청/여자+67kg) 선수는 각각 2일차와 3일차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효정 기자

# 용화사 주관 제23회 6.25 신녕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대한불교 범화종 용화사(주지 혜각)는 5일 6.25 72주년을 맞아 영천시 신녕면 성환산 공원 신녕지구 전승비에서 신녕전투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23년째다.

이날 위령제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전용사, 용화사 신도회, 신녕면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렸다.

신녕전투는 영천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영천 북방의 신녕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이 영천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저지시킨 방어 전투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녕전투는 1950년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2일간 국군 제6사단을 주축으로 한 아군이 적군의 전차를 육탄으로 공격하는 등 용전혈투 끝에 적을 퇴각시키고, 국군의 총반격 계기를 만들어 북진의 발판을 이루어 낸 기념비적인 전투였다.

<영천시 보도자료>



## 제72주년 영천대첩 기념식 거행

### 국립영천호국원에 호국보훈단체회원 등 400여명 참석

제72주년 영천대첩 기념식이 영천시·영천대첩참전전우회·제8기동사단의 공동 주관으로 7일 국립영천호국원 내 영천대첩비 앞에서 열렸다.

이날 영천대첩 참전전우 4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10대에 전장에 투입돼 오늘로 구수를 훌쩍 넘기는 세월이다.

행사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규천 영천대첩참전전우회장, 주성운 제8기동사단장, 강성미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이상순 국립영천호국원장등 기관장과 시의원, 보훈단체장, 참전전우회 및 8사단장병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했다.

영천대첩은 6.25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 전쟁이다. 영천이 함락될 경

우 북한군은 경주를 넘어 부산마저 함락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에 놓인다. 당시 보병 제8사단을 주축으로 제7사단 2개 연대와 제1사단 11연대 및 제6사단 19연대가 참전한 영천대회전 작전에서 1950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필사의 공방전끝에 영천을 사수하고 이를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아군의 북진 발판을 마련한 전투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2년 5월 국립영천호국원에 영천대첩비가 건립됐다.

축사를 통해 최기문 영천시장과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6.25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오늘 기념행사가 72년전에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한우 객원기자



# 영천과일축제 홍보 UCC 영상 공모...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 대중성, 작품성,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5개 부문 심사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21회 영천과일축제 홍보를 위한 영천과일 홍보 UCC 영상 공모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영천시는 영천과일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축제에 대한 대중성, 작품성,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5개 부문의 심사항목으로 이 같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과 팀 단위(최대 4인까지)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포도, 복숭아, 자두 등 우수한 영천과일 소개와 영천과일과 연계한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 등 '새롭달콤 영천과일 스타 만들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UCC 영상으로 참여 가능하다.

시는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작품을 영천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조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상금 총 260만원(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규격은 20초 이상 2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팀(전화 054-339-7184) 또는 lvlyjn@koera.kr로 제출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 대창초, 고구마 캐기로 자연 친화적 체험

## 전교생 참여 수확의 기쁨 누려

대창초등학교(교장 박중희)는 지난달 29일 본교 텃밭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을 전교생이 참여했다.

대창초는 매년 계절마다 텃밭을 이용해 봄에는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며, 여름에는 감자캐기와 옥수수 따기, 가을에는 고구마 캐기 등의 자연 친화적 체험을 한다.

이번 체험으로 바른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거치는 과정,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경험과 자연의 소중함, 수확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정 기자



# 평천초, 道교육청과학원 과학교실 참가

## 과학적 탐구력 태도, 소양 신장

평천초등학교(교장 정인진)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적 탐구력과 태도 및 소양 신장을 위해 8월 31일 포항소재 경상북도 교육청과학원에서 실시하는 1일 과학교실에 참가했다.

이날 과학교실 오전은 4계절 별자리 이야기를 듣고 천체투영실에서 태양계 여행을 했고 4D체험으로 테크노타운, 생명의 세계등을



체험했다.

또 오후는 탐구체험학습실에서 기초과학원리를 탐구하는 창의융합 과학 수업으로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 동부초병설유치원, 마음을 열어주는 미술놀이

## 유아 심리안정 및 행복감 증진

영천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철연)은 8월 31일 유아 심리안정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는 미술 놀이'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미술놀이는 만3세부터 5세까지 활동했으며 미리 주어진 내용물에 종이테이프나 물감등 추가적인 재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해당 유치원은 감성자극 활동을 계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예술적인 흠놀이 활동을 했다.

김효정 기자

# 북안초병설유치원, 흙과 자연물 예술활동

북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이강수)은 지난 1일 원아 4명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흠놀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먼저 원아들과 흙과 자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예술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조소놀이를 통한 표현, 멋진 나의 손 활동을 통한 구성, 자연물로 쿠키 만들기 놀이 등 3가지 테마로

#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 하반기에도 1인당 1만원씩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학년도 하반기 초등학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도서구입비 지원을 '경상북도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경북교육청 학교독서교육진흥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전년도까지 해마다 1인당 1만원씩 1회 지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2021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만원씩 도서구입비를 학교로 지원했으며, 현실적인 도서 가격을 반영해 하반기에도 9월에 추가로 1인당 1만원씩 지



원할 방침이며 이후 지원지급에 대해서는 학교 재량으로 진행된다.

학생생활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서 가격 반영으로 1인당 2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 서점 활성화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지역 서점 이용 구입으로 하되, 배분 구입 되도록 권장하고 권장도서 목록 중 선택하도록 한다. 김효정 기자

# 영천중 2학년 신희철, 카дет태권도선수권대회세계대회 은메달

영천중학교(교장 김미라) 태권도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카дет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아 국가대표로 본교 2학년 신희철군이 웰터급으로 선발·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카дет: 14~15세 국가대표)

신희철군은 결승전 상대 선수와 6:6 동점인 상황에 상대선수가 얼굴 공격특점 힛수가 높아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을 획득한 신군은 "국제경기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됐지만 스



스로를 믿고 집중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초병설유치원, 해바라기 이용한 퍼포먼스 미술체험놀이

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여은숙)은 지난달 30일 유아 50명을 대상으로 해바라기를 이용한 퍼포먼

스 미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감상 후 해바라기 씨 탐색하

기와 아이클레이와 씨앗으로 해바라기를 꾸며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정 기자



# 경북교육청, 초등 1~2학년 기초학력진단검사

## 3R's(읽기, 쓰기, 셈하기) 영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영역 조기 파악 및 학습 결손의 신속한 보충 지도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초3~고1까지는 학기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이어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1학기 과정(2학년은 1학년 일부 포함)을 범위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 영역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에서 △읽기는 특성체 크리스트 △쓰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

활용, △셈하기는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검사 자료를 활용해 실시된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는 진단검사 결과, 담임교사의 평소 학습 과정 관찰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학년 협의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수요에 따라 '찬찬한글 지도' 자료를 인쇄·보급할 계획이며, 학기 초부터 저학년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기초학력오름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추석 맞아 각 읍·면·동 '국토 대청결 운동' 동참

### 금호읍, 화산면, 화남면, 임고면, 대창면, 서부동, 남부동 참여

영천시 각 읍·면·동은 지난 2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클린(국토 대청결) 운동이 추진됐다.

먼저 금호읍은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기관·단체 회원 100여 명

이 모여 금호강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화산면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화산체육공원까지 30여명이상이 동참해 인도변 잡초 제거 등을 실시했다.

화남면도 면 소재지에서 귀호리(관광지-귀

애정) 방면 도로변을 청소했는데 과일 출하로 바쁜 일정에도 노인일자리 어르신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임고면은 임고강변공원을 중심으로 폐농자재 및 방치된 쓰레기를 제거했다. 이날 참여 인원은 약 30여 명이다.

대창면에서는 60여 명이 관내 주도로를 3개 구역으로 나눠 행락철과 장마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 쓰레기와 농사용 폐기물, 각종 불법 광

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서부동은 교차로 일대에서 지난2일 10여 명을 투입, 7일은 서부동 통장협의회 및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도로변, 교차로, 하천변에 방치된 불법 투기물, 폐농자재,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했다.

남부동은 영천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가족센터, '꿈꾸는 우리집' 입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6개 단체 참여

영천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아)는 지난 8일 대창면 소재의 다문화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꿈꾸는 우리집' 완공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에는 27사나래봉사단, 별빛회봉사단은 주택 개·보수 재능기부,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도배, 장판 지원, 영천스타이온스클럽은 후원금 200만원, 영천중앙로타리클럽에

서는 200만원 상당의 가구 및 컴퓨터 지원,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 연계 및 물품을 지원으로 지역 6개 기관 및 단체의 참여가 있었다.

또 월간 빛 잡지 후원금과 지역사회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됐다. 김효정 기자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 경 월남 참전 호국의식 함양 및 기념탑 준공식 축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영천시지회**

▶일시: 2022년 9월 23일 14시

▶장소: 영천충혼탑산(영천시 교동 11-12)

지 부 장	김준휴	위 원	이영준
지 회 장	박석만	"	지규명
사무국장	정연팔	"	최상빈
고 문	김기용	"	김백순
"	이인호	"	온중수
대 의 원	황종태	"	박병환
위 원	류의봉	"	강경순
"	이규용	"	서대운
			박주상

T.054)335-4205 / F.054)338-4205  
사무국장 010-9797-8136



# 경북도교육청, 추석맞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4곳과 소방서 1곳 방문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2일부터 7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4곳과 소방서 1곳을 방문했다.

먼저 첫 일정으로 2일, 안동소방서 소방대원 격려와 위문금을 전달하고 의성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산동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을 방문했다.

이후에도 오는 7일까지 도내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성요셉재활원(중증장애인지원시설)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노인요양시설) △영천시야사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를 차례로 방문했다. 장지수 기자



##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 지난해 보다 403명 감소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8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 대비 403명이 감소한 19,87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전년 대비 716명이 감소한 16,192명(81.5%), 졸업생은 241명 증가한 3,206명(16.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72명 증가한 479명(2.4%)이다.

졸업예정자의 수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데 반해,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의 수는 전년 대비 각각 8.1%와 17%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 대비 118명 감소한 10,155명(51.1%), 여학생은 285명이 감소한 9,722명(48.9%)이 지원했다.

영역별 선택 현황은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14,016명(70.9%), 언어와 매체 5,764명(29.1%)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9,608명(50.4%), 미적분 8,052명(42.2%), 기하 1,391명(7.3%)으로 나타났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 9,796명(50.2%), 과학탐구 8,894명(45.6%), 사회·과학탐구 737명(3.8%), 직업탐구 86명(0.4%)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은 2,255명(11.3%)이 지원했다.

전체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은 도내 고3 재학생 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올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지원경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선택과목의 선택 비율 또한 전국적인 변화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영천포교당 문선희 삼소봉사단, 성금 기증

### 서부동에 이웃돕기 10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영천포교당 청량사(주지 서오 스님) 내 삼소담봉사단(회장 문선희)이 지난 7일 추석맞이 이웃돕기 100만원을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기부했다.

삼소담봉사단은 2016년 봉사단을 결성한 후 매월 독거노인 가구 반찬봉사,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마스크 전달, 육군3사관학교 간식 봉사, 선화여고 장학금 지원 등 현재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지어오고 있다.



문선희 봉사회장은 "추석 명절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겐 더 소외감이 들 수도 있어, 이번 기부에 뜻을 모으게 됐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어 모두에게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구체험활동 참여 '다-배움'

영천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아)는 지난달 27일 다문화가족 7가구를 대상으로 다-배움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에는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 자녀와 부모가 참여했으며, 야외 체험으로 구성돼 대구 팡팡치킨랜드와 대구 섬유박물관을 다녀왔다.

참여자족들은 팡팡치킨랜드에서 치킨, 햄버거 만들기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리스 만들기, 어린이체험실 견학을 통해 업사이클 디자이너 체험으로 아동들의 직업 탐색 경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천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 기초 수학 등 기본 학습 지원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연간 제공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경로당, 402개 불박이 소파 설치한다

### 어르신들 호응·만족도 높아

영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금호읍 덕성리 경로당에 불박이 소파 설치를 시작으로 402개소의 경로당에 불박이 소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로당 불박이 소파는 전년도 경로당 2개소에 시범 설치 후 어르신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로 시 경로당 402개소에 확대 설치하게 됐다.



경로당 마다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측 후 제작 설치 된다.

김효정 기자

## 중앙동새마을지도자협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영천시 중앙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상용) 회원들이 지난 3일 관내 저소득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가구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열악한 환경의 생계위기가구를 발굴·연계해 20여명의 봉사단이 싱크대 교체, 벽지 및 천장 도



배 등으로 주거환경에 개선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자원봉사센터 도배봉사단, 도배재능 나눔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 도배봉사단은 지난 4일 관내 대창면 운천2리 다문화가정에 추석맞이 도배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도배봉사단(회장 배경식)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봉사단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하는 자원봉사대학 도배전문교육 수료한 회원 약 15명 정도가 지역 내 도배 재능나눔 활동을 한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붕어·잉어 치어 5만 마리 방류

영천시는 지난 1일 붕어·잉어 치어를 내수면 토속 어류 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내 저수지 22개소에 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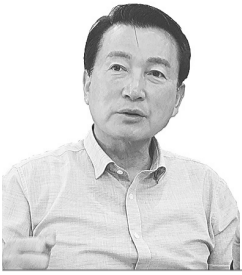
방류 지역은 외래 어종과 서식

환경 적합성을 고려해 읍·면과 영천시 낚시연합회에서 방류 신청을 받은 저수지로 관내 금호읍 부제지 등 22개소다.

김효정 기자



우종철 칼럼



우종철 논설주간  
일요서울

‘정치적 양극화’와 만해 한용운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 균형비행’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좌-우 ‘정치적 양극화’다.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 정치의 양극화는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긴다. 이제 지혜로운 ‘통합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

광복 직후의 남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대혼란기였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 좌익 진영과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김성수·송진우의 한국민주당 등 우익 진영,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이 극심한 갈등 속에 각축했다.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은 이 혼란의 파고에서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으로 신탁통치 반

대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좌익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저지했다.

거슬러 올라가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두 노선, 즉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의 충돌을 화해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두 노선이 서로 반발한다면, 사상(思想)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해 선생이 지금 좌-우로 갈라진 ‘정치적 양극화’를 예단하고 한 말은 아닌지, 그의 선견(先見)에 놀랄 따름이다.

한용운은 조선 불교를 개혁한 위대한 승려이자 저항시인이요, 민족혼을 일깨운 독립투사이다. 본관은 청주, 자는 정옥(貞玉), 아명은 유천(裕天), 법명은 용운(龍雲), 호는 만해이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한응준(韓應俊)과 온양 방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만해는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한 뒤, 18세에 설악산 오세암(五歲庵, 백담사의 부속 암자)에 들어갔다. 여기서 불교를 수도하다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노령(露嶺, 러시아의 영토), 시베리아, 일본 등지를 여행하였다. 귀국 후 27세에 강원도 백담사에서 연곡(蓮谷) 선사사를 은사로 출가했고, 39세에 오세암에서 좌선하다가 견성(見性)했다.

만해는 32세에 불교 개혁방안을 제시한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을 탈고하여 불교계에 일대 혁신운동을 일으켰다. 36세에는 <불교대전(佛敎大典)>을 간행하여 반야사상에 입각,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40세에는 불교잡지 <유심(惟心)>을 발간하였다. 이리하여 만해가 추구하던 불교의 대중화와 청년운동을 강화했고, 민족의식을 크게 고취하였다.

만해는 1919년(41세)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수정했고, 행동강령인 <공약 3장>을 첨가했다.

88편의 시를 모아 <님의 침묵(1926년)>이라는 시집을 발간하였고 176수의 한시를 남겼는데,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과 불교에 의한 중생제도(衆生濟度)를 노래했다.

물산장려운동과 신간회(新幹會) 결성을 주도하였고, 신재호 선생의 묘비를 건립하였다. 창씨개명 반대운동과 조선인 학생 출정 반대운동을 목숨 걸고 전개하였다.

만해는 55세 때(1933) 성북동에 ‘심우장(尋牛莊)’이라는 택호(宅號)의 집을 지었는데, 총독부청사가 보기 싫어 동북방향으로 집을 틀어 버린 일화가 있다.

1944년 6월 29일. 만해는 그토록 그리던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눈앞에 두고 66세에 입적(入寂)하고 말았다. 만해는 떠났지만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의 노래’는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본 필자는 운동주, 이육사, 이상화 등과 함께 일제 강점기 최고의 저항시인이자, 불멸의 선각자인 만해 선생을 경모하면서 자작 시 한 수를 바친다.

男兒何處不無鄉(남아하처불무향) 대장부가 가는 어느 곳이 고향이 아니던가

喝破高聲淨土疆(갈파고성정토강) 큰 소리로 깨끗한 세상에 진리를 밝혔네

濟衆導生刊大典(제중도생간대전) 중생을 구제, 이끌기 위해 <불교대전>을 간행했고

入塵垂手引天堂(입전수수인천당) 거리로 들어가 중생을 도와 천당으로 인도했네

維新佛法韓民度(유신불법한민도) 불교를 개혁하여 한민족을 제도했고

獨立宣言世界彰(독립선언세계창)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세계에 드러냈네

荊棘滿身終殉國(형극만신종순국) 온몸 가득 가시 찌르는 고통으로 마침내 순국했고

嗚呼精氣四時長(오호정기사시장) 오호라, (선승의) 정기가 일년 내내 푸르네

기고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청도)



성공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했다.

때문에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는 영천경마공원 사업을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고, 지난 6년 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2차례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예·결산,

보태주셨다.

이철우 지사와 뜻을 같이해 온 영천시 그리고 최기문 시장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영천경마공원은 공사단계부터 운영까지 1만5천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과 연간 200만명의 유동인구로 경마공원 주변 개발과 교통 인

야 하며, 계획된 각종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4년 말 완성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영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연결을 이끌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즉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선 것이다. 제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갈 준비는 모두 마쳤다.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인 완공이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돼, 경북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거듭나 ‘영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 더 나아가 지방이 국가의 중심되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기공식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영천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반드시 명품 경마공원을 만들어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

말(馬)이 가져다 줄 영천의 희망

[9월30일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에 즈음 해

드디어 오는 30일 국내 제4 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이 첫 삽을 뜨게된다. 2009년 첫 유치로부터는 13년 만이다. 국회 첫 등원 후 심혈을 기울여 온지 만 6년만에 그동안의 착공 여부 논란에도 종식을 알리는 기공식이다.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경마공원 사업 정상화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농복합도시 영천의 특색을 살린 ‘100년 먹거리’ 산업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영천경마공원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천경마공원을 단순한 경마장 건설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발로 경북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힘

프라 확충 그리고 지방재정의 열악함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영천경마공원이 실질적으로 영천과 경북도의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영천경마공원 주변 ‘하양~금호’ 간 도로 확장, ‘대구도시철도 연장’ 등 영천경마공원 사업에 발맞춰 확정된 각종 교통 SOC 확충 사업들을 진행해

- 첫 유치로부터 13년 만...영천의 '100년' 미래 먹거리 드디어 첫 삽
- 경마공원 정상화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자임 선택
- 1만5000명 일자리, 연간 2만명 유동인구 확대 기대

기자수첩

김효정 기자



형식적 범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청소년부모 걱정에 진정성이 필요하다"

영천 향교 인근 시계시대에 청소년부모 20만원 지원 현수막이 붙었다. 청소년부모 지원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소관 사업이다. 영천시는 가족행복과 여성가족계를 통해 지원된다.

청소년부모란 만24세이하 두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하는 어린 부부를 말한다.

영천시에 문의 해 본 결과 이같은 청소년(부부) 가구는 8가구에 그중 자녀를 둔 경우는

겨우 2가구에 불과했다. 2022년 8월말 기준 영천시 전체 가구수 54,249 세대중 지원 대상자가 달랑 2가구 뿐이다.

겨우 2가구를 두고 현수막까지 게시까지 할 일인가? 특정할 수 있는 숫자인데 굳이 한 장당 5만원에 가까운 현수막 비용을 들여 여기저기 홍보할 일인가에 가우뚱 고개를 젓게된다. 혹 숨어 있는 청소년부부 가구를 찾고자 한다면 모를 일이나 이 또한 전산 자료만으로도 인지하고 남을 사안이라 고개 끄덕이기가 쉽지않다. 영천시의 의도적 홍보 수단에 불과해 보인다.

여가부가 지난해「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해당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251만 6천원)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시범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지원이다. .

현재 영천시는 올해 2월 출산·양육 장려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 출생시 10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회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는 출생시 100만원에 월 20만원씩 6회 총 1,300만원으로 이전보다 800만원이 더 높다. △셋째는 출생시 100만원에 월 25만원씩 6회로 총 1,600만원이다. △넷째도 출생지원금은 동일하며 월 30만원씩 6회 총 1,900만원 지원으로 이전보다 600만원 증가했다.

문제는 이같은 청소년부부 양산이다. 학교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서로 동의하면 문제없다는 인식을 확산하면서 반면 피임을 가르친다. 자기모순일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마찬가지로 성적권한을 확대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학생관리를 주장하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리고 임신하고 학교 출석하는 학생에 대해 차별을 금하고 혐오하지 말라는 강요다.

청소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또 그것이 진정한 보호가 아님에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 범망에만 의존한다.

인권을 들먹이며 맘대로 해도 될 것 처럼 내뱉고는 막상 학교내 성관련 문제가 제기 되

거나 임신한 학생이 확인 되었을때 타 학생이나 교사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라는 조례나 만들어 내고 지원금이라고 매월 20만원씩 준다는 정책이라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나팔라 정책에 불과하다.

공교육에서 '성적자기결정권', '학생인권'을 배운대로 행한 아이들로 인해 조례와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조례와 법들이 청소년을 인질삼는 것은 아닐까?

현재 결혼 적령기라는 말도 없지만 늦어지는 결혼으로 30, 40대에 결혼하는 성인도 결혼, 자녀양육을 회피하는 현시대에 청소년에게 이런 일로 인한 선택,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한 인격체로서의 성은 또 다른 성을 통해 생명을 갖게 된다는 중요한 핵심은 빠진채 생명조차 돈으로 생각하게 하는 물질만능주의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여기에 현실적 문제제기없이 형식적 범망에만 의존하는 공직자와 법(장치)만 만들어 내고 책임없이 관망하는 정치권은 한번쯤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동정

이철우, 포항철강공단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4일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참석했다.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정상 가동,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중앙 119구조 본부에 대응량포 방사시스템을 긴급 지원 요청했다. 또 경제위기 대응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영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영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마련할 경우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조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054-339-7292)로 연락하면 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포항 장기초등학교 방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4일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장기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

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2022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 합격자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씨(여, 76세),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씨(여, 65세)와 초졸 조씨(여, 68세)에게 합격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영천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 회의 진행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9월 14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학교, 특수학교 교(원)장 42명과 교(원)감 35명을 대상으로 2학기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 관리자 회의를 진행했다.

영천시의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 하기태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 10여명은 지난 14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통면 신원리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에 나섰다.

이날 지원활동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과 함께하면서 의회는 공무원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하기태 의장은 "갑작스런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

북안 헤민복지재단 이의웅 이사장, 대통령 표창

사회복지 기여... 코로나19 안정적 복지시설 환경조성에 증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소재 헤민복지재단 이의웅 이사장이 이달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영천시가 전했다.

이의웅 이사장은 1984년 서울정신요양원 시설장으로 입사하여 1988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서 사회복지법인 헤민재단을 설립, 산하에 4개 생활시설(노인, 정신질환, 중증장애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정신질환자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안정적 요양생활 환경조성과 요양서비스 증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 'A'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의웅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시설격리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는 등 시설 생활인보호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력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수 기자



김진수 영천축산농협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3년 연속 수상

영천축산농협 김진수 조합장이 지난 7일 NH농협생명 '경북 농·축협 BEST CEO'에 선정됐다. 지난 20년, 21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

경북 농·축협 BEST CEO상은 ▲조합원 실익증대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한 농업인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보장확대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농·축협 조합장에 주어지는 농·축협 명예의 상징이다.



2019년 제21대 영천축산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김 조합장은 재임기간 동안 조합

원 실익증대, 영천축산농협 건전경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사업을 확대 추진해오면서 올해 8월에는 경북 농·축협 156개중 생명보험 실적 1위를 달성했다.

김진수 조합장은 "이번 BEST CEO 수상은 무엇보다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받은 상이다"며 "지역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천축산농협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지수 기자

폴리텍로봇캠퍼스 이연보 학장, 영천시장학회에 두 번째 장학금 기탁

2023학년도 신입생 4개학과 100명 모집(수시 1차 9월13일부터 원서접수)

이연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영천) 학장이 지난달 31일 지역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영천시장학회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연보 학장의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난해 취임 100일을 기념해 1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 학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융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며 기탁 취지를 밝혔다.

폴리텍 로봇캠퍼스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수시 1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로봇기계·로봇전자·로봇자동화·로봇IT와 등 4개과 100명이다. 대학측은 오는 13일 수시 1차, 11월 7일 수시 2차, 12월 29일 정시모집으로 3차에 걸쳐 신입생 모집 접수를 시작한다.

입학생에게는 영천 주소 전입을 조건으로 100만원의 장학금(별도)과 생활비 100만원 및 타지 학생의 경우 2인 1실 기숙사도 제공한다. 또 소득분위 8분위까지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고경면새마을부녀회 올해 첫 김장배추 심기



고경면 건강한 김장 배추 심기 행사 모습

영천시 고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해안)가 지난달 29일 용전리 일원에 사랑의 배추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배추심기에는 고경면 직원, 고경면새마을부녀회 17여 명이 참여해 고경면 용전리 832번지 내 약 300여평에 1500여포기 김장김치용 배추모종을 심었다.

부녀회는 그동안 매년 김장배추를 구입해

김장을 담귀 불우이웃 돕기를 해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김장배추(무우 포함)를 직접 심어 김장담구기 자급자족할 예정이다.

부녀회는 이번 배추는 11월 말쯤 생산해 12월 초 김장을 담귀 김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해안 새마을부녀회장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앞으로도 봉사과 이웃사랑을 실천해갈 것"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새마을부녀회, 올해도 배추 모종 5천 포기 파종

11월 이웃돕기 사랑의 김장김치용

영천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최분순)는 지난 달 30일 금호읍 덕성리 새마을농장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용 배추 모종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부녀회는 지난해에도 이같이 8월 파종한 배추를 11월 직접 수확해 5,000포기를 수확하여 김장김치 1,085박스를 생산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했다.

이날 회원 50여 명이 오전 6시부터 참석해

3,000포기 분량의 김장배추와 무우 모종을 심고, 신녕 부녀회에서 추가로 이날 2,000 포기를 심어 11월경 약 5,000포기를 수확한 후 김장을 담귀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 이웃과 나눌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배추모종 심기에는 유일하게 지역 선출직으로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영우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역 시도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분순 회장은 "영천시(새마을체육과)와 금호 읍에만 알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싶어요  
퇴직연금분할청구권 주장 가능할까요?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은 분할청구권 인정  
남편 공무원연금, 혼인기간 퇴직연금 절반 지급받아

**문** 저는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을 행사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애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중 퇴직급여는 다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청구권의 문제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과 이에 대한 분할연금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

직한 후 65세가 된 때부터, 계급정년으로 퇴직시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탈 수 있다. 물론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지급 시점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달연수에 따라 감액되는 조건으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타방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타방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이며, 분할청구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에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연금분할에 관한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만약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분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귀하께서 분할연금청구의 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로부터(예, 65세) 3년 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경우 분할연금을 탈 수 있는 때로부터(예, 66세) 사망시까지 남편이 받는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그 절반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오피스텔 세금 어떻게 될까?

최초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사무실로 임대, 부가가치세 환급  
1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매각 주의  
당초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수취는 환급 불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용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이 달라진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 사무실로 임대를 하거나 주택으로 임대를 하게 된다. 주택으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

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최초 신규분양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로 사무실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본세에 추가로 초과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1주택 이상인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매각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사용하던 건물을 과세에 전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초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택으로 시작한다면 면세사업자등록, 사무실로 시작한다면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오피스텔을 취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사설]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장수의 기본

영천시 인사권자는 아무 것도 모른다. 모두 부하 직원이 한 일이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쉼의 나이에 7년 전정 임진왜란의 끝을 바로 눈앞에 두고 노량해전에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면 적에게 사기진작 기회를 줄까봐 전쟁중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만아들 회에게 당부한 이순신의 말이다.

58년 전 1965년 10월 당시 29세 고 강재구 소령은 폭발하는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살리고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

최근 2020년 신종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부하들을 살리고 경질된 크로지어 美함장의 일화도 많은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사건이다. 모두 자신의 몸을 던져 부하를 살린 살신성인(殺身成仁)들이다.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自身)의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자기(自己)의 몸을 희생(犧牲)하여 옳은 도리(道理)를 행(行)함을 일컫는 말이다.

새삼 언급하면 부하 뒤에 숨어 도리어 부하를 방패삼아 자신의 안위나 권력을 갈구하는 리더에게는 연감생심 근접할 수 없는 단어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상이기도 하다. 특히 좌파들은 내가 살기 위해 가장 가까이 두었던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감히 자신있게 한마디 던진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많은 지역 자치단체장(市場, 군수) 등은 정책이나 시정 능력보다 인사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칼로 일본 열도를 제패한 토요토미히데요시의 조선 침탈 칼날보다 더 강한 인사권이다. 공직자는 승진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히데요시의 칼날은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비키라는 명분 뒤에 조선 침탈의 야욕을 숨겨왔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경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하게 인사권 하나로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자신은 부하 뒤에 숨는 경우가 다반사다.

다만 이 경우 부하가 스스로 사지로 뛰어드는지 아니면 인사권자가 의도적으로 부하 뒤에 숨어서 부하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지는 당사자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동안 영천시의 업무형태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노조 뒤에 숨었는지 아니면 노조가 인사권자를 장악했는지 내부자 고발이 없이는 알 수 없다.

한때 영천시의 전임 노조지부장 출신들이 동서남북으로 인사권자 주변 요직에 포진했다. 인사담당, 홍보담당, 감사담당 등 이들 모두 동시다발적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현직 노조 지부장은 아예 특정 언론에 대고 노골적인 업무방해와 탄압을 자행했다. 특정 한 언론에만 보도자료를 제한하고, 광고를 배제하며 취재를 거부하는가 하면 이같은 내용을 대놓고 모든 청사에 유인물로 도배(부착)를 해도 인사권자는 모르는 일이다. 결국 인사권자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특정 언론에 재갈을 물렸지만 이 또한 부하직원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공무원노조와 특정 언론과의 싸움만 붙이고 노조 뒤에 숨은 인사권자다. 청사 모든 건물에 부착된 취재거부 유인물, 인사권자와 모든 간부공무원은 나몰라라다. 건물과 청사 관리권이 인사권자에 있는데도 노조가 마음대로 청사건물 출입구에 특정언론 취재금지 유인물을 부착했다는 답변이다.

지난 추석 전에는 인사권자 개인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행정계시대 48곳에 부착했다. 어느 선출직은 불법으로 걸거나 아니면 지정계시대(상업용)에 걸어야 했다. 태풍이 들이닥치자 시내 모든 현수막이 철거됐지만 인사권자의 저당형 행정계시대 현수막은 제외됐다. 특혜를 누린 것이다.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로 인사권자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제작해 예산 불법집행 의혹도 받고 있다. 인사권자 개인 현수막을 부하직원이 당사자의 결재도 없이 알아서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정이 이런 대도 모두 직원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다. 모든 리스크는 부하 직원으로 싹텄다.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가 보자. 민선7기 영천시(시장 최기문) 인사행정에 대한 평가조사가 지난해 4월 공개됐다. 조직원(시청 공무원 사무관이하) 67%가 승진인사에 대해 불공정했다고 답했다. 특정 언론은 영천시「승진명부 기초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을 보도한 후 사설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쯤되면 욕 먹어도 싸다'...정실인사(情實人事)이제 내려 놓자」를 보도해 영천시의 불공정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연히 영천시는 "시장이나 인사부서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해당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로서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2021년 경상북도 영천시 종합감사결과 부당하게 직렬을 조정해 승진 할 수 없는 직급 22개를 승진시켰고, 또 지방서기관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관 3명을 서기관급인 국·소장 자리에 앉히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해 경북도로 부터 기관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모두 인사권자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변명이다.

지난 2019년 영천시 인사권자의 부적절한(인사행정) 특정 언론의 지적에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올라온 안대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던 인사권자, 어느 날 "제가 모 인사로부터 인사 청탁 쪽지를 받았는데"라며 5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이자들이 시정 책임자 임니까?"라고 말한 인사권자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

제26회 **한약우** 봉화송이축제

2022. **09.30** 금 - **10.03** 월  
봉화읍 체육공원, 관내 송이산 일원

주최 |  봉화군 • 주관 |  봉화축제관광재단  
Bonghwa Festival & Tourism Foundation



www.maskdance.com

2022 **탈춤** 인동국제 페스티벌  
제49회 안동민속축제

2022. **9.29** THU - **10.3** MON  
안동 원도심 일대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

Imagine your Korea  
대한민국 영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주최|  안동시 |주관|  한국정신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99** 만원

**영국화원**  
영천 전문장례식장

고급수의/관/도우미/상복/장의버스/입관용품  
**(054) 331-4444**  
(영천영대병원 옆)

